



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

빠다킹 신부님 강론 중에서 발췌

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여행상품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?

1) 공짜 경품 이벤트: 제주도 2박3일 숙박권과 렌터카 48시간이 공짜! 단, 제세공과금(99,000원 별도).

2) 9만 9천 원 초저가 상품: 제주도 2박3일 숙박권과 렌터카 48시간(추가요금 없음).

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, 사실은 똑같은 가격입니다. 그러나 첫 번째 상품에는 '공짜'라는 말이 들어 있었고, 두 번째 상품에는 '초저가'라는 말이 있습니다.

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액수이지만 대부분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'공짜'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하긴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듯이, 공짜는 어떤 상황이든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다. 그런데 진짜 공짜가 있을까요?

유일한 공짜가 있기는 합니다. 바로 주

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.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.

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안에서는 참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.

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,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?

이 주님의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랑은 먼 훗날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, 과거에 일회적으로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.

과거에도 주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며,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어질 사랑입니다. 

주일전례

제 1독서 2마카 7,1-2.9-14

화답송 ◎ 주님,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.

제 2독서 2테살 2,16-3,5

복음 루카 20,27-38 또는 20,27.34-38

연중 제 32주일 화답송 【다해】

시편 17(16), 1. 4과 5-6. 8과 15



(후렴) 주님,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.

